



P2 / 느헤미안 칼럼

이번 호 칼럼에는 김형원 원장님과 김현정 학우, 강도영 연구생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P6 / 느헤미야 소식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P7 / 재정보고/기도제목

지난달 느헤미야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주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5년 2월호(재창간호)



2015 정기총회 및 수료식



2014 느헤미야 겨울특강\_ 안용성목사 / 우종학교수



수료생들과 교수님들

교수칼럼

## We Are A Team!

>> 김형원 원장



LA 인근에 있는 소년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관한 실화입니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실패를 맛본 그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 선수 출신의 간수가 풋볼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코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갱단에 소속되어 사사건건 부딪치는 아이들의 적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습관을 버리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그들이 모여서 훈련할 때마다 외치는 것, 그것은 "We are the team!"이라는 구호였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점차 팀을 이루어가지만, 또 다른 적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되려고 하니까 자신의 플레이를 돋보이게 하려고 팀과 화합하지 않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팀을 이용하려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팀을 이탈하려는 아이들의 행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팀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고 결국 패배로 이어집니다.

갈등과 충돌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한 가지 원동력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팀을 위해

“ 리더도 중요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팀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땀방울 세례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

희생하는 멤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팀을 위해 허리에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헌신한 사람, 팀을 위해 기꺼이 물주전자를 나르는 사람, 다른 갯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팀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갯단을 배신하는 사람, 실패하면 해고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팀을 이끌었던 간수 겸 코치, 등등.

결국 그들은 한 팀을 이루었고, 점차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워갑니다. 이 모든 것은 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팀을 위해 헌신하고, 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단체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동창회든, 친목회든, 취미활동단체이든, 아니면 교회든, 잘 운영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희생하든 숨어서 희생하든 그런 사람들이 뒷받침 되어야 전체가 한 팀으로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갈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

다. 리더도 중요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팀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땀방울 세례가 없다면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의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한 팀을 위해서, 그 팀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느헤미야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면 결코 '한국교회의 재구성'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헤미야의 앞날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헌신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보이시지요?

우리는 팀입니다. "Ww are a team!" 

느헤미안

## 입문반을 수료하며...

>> 김현정 학우 \_ 기독교학입문과정 4기 수료

1년 전 느헤미야를 알게 되면서 삶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배타성이 짙던 자세가 포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 말고도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물 안에서의 열심보다는 일상과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인가'를 자각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것에 대해 실천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매달리고 조바심을 가지기 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나와 세상을 잘 아는 것 또한 지혜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와 나의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회건물 안의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다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인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물렀던 한 도시인 바라나시에는 갠지스강과 화장터가 있습니다. 강가의 한쪽에서는 시신들이 장작불에 타고 있고, 그 바로 앞 갠지스 강물에는 더 잘 살고자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숙명처럼 공존하는 것이 인간이고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자 몸을 씻었던 그들이 한줌의 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삶의 허무함과 허망함이 몰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재와 같은 인생이 누구를 의지할 때 의미가 되는지, 이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와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지며, 이 지식이 세상과 소통하기를 느헤미야 공동체와 함께 소망합니다. 

느헤미안

## 벌써 일년

>> 강도영 학우 \_ 목회학 연구과정




신학 공부에 대한 결심을 했던 때는 삶 속에서 신앙과 문화의 구분이 흐려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다. 평생을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답안은 언제나 명확했고 그런 잣대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문화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지자 힘들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교단 신학교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추락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뻔뻔함과 절대로 변하기 싫어하는 보수성이 싫었고 많은 부분이 소위 말하는 교단신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때마침 '세상과 소통하는 연구',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느낌을 주는 학교를 만났다. 느헤미야는 전임교수도 많지 않았고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그다지 확실한 진로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학교였지만 교수님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셨고 한국 교회의 개혁을 외쳤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도 남달랐다. 주변의 모든 우려들을 뒤로한 채 느헤미야에 입학했다.

느헤미야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신학적 전제들을 흔들었다. 대부분의 것들은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별다른 질문 없이 수용한 것들이었다. 깊은 성찰 없이 받아들인 중

교적 명제들은 강한 도그마가 되어 여기에 반문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인격적인 수업방식과 대화 그리고 기꺼이 끝까지 토론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동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벌써 일년이 지났다.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고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데 교육과정의 1/3이 끝난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3년의 신학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학은 평생 해야 할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에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 씨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진리를 향해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 

## 느헤미야 소식

### 방학특강

**1/26-27** 우종학 교수님의 <과학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강의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2-3** 안용성 목사님의 <하나님나라의 복음과 로마제국> 강의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느헤미야 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 연구생 동계 수련회

**1/19-20**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

### 입문반,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및 면접

1월과 2월 입문반과 연구과정 신입생을 모집하여 입문반 34명 연구과정 17명이 새롭게 느헤미야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주제별 전문과정 개설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과 적용>

김형원 원장 /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제2성전기연구>

김근주 학술부원장 / 매주 월요일 오후

2:00~4:40

### 정기총회 및 수료식

**2/24**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기총회 및 입문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 주해를 위한 기초 히브리어

**2/23-27** 연구과정생들을 위한 히브리어 특강이 있었습니다.

### 개강예배

**2/24** 2015년 1학기 개강예배를 느헤미야 교수들과 연구과정생들, 입문/심화반 신입생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 연구과정 학우회 조직

학우회장에 2학년 유희창 학우가, 부회장에 2학년 한상은 학우가 선출되었습니다.



## 3월, 4월의 일정

**3/02** 개강 (입문반, 심화반, 연구반)

**3/04** 신학 연구과정 첫 채플

**4/14** 심화과정 전반기 7주 끝

**4/21~23** 8주차 Reading Week

**4/28** 심화과정 후반기 7주 시작

# 2015년 1월 후원동역자와 재정보고

## 개인후원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선희, 강성태, 강인성, 강현길, 강화춘, 고미혜, 고윤일, 고재광, 공경표, 공영찬, 광명화, 구자욱, 권경욱, 권두현, 권명재, 권민영, 권민정, 권성호, 권세윤, 권순익, 권연경, 권현아, 권현진, 기호용, 김규동, 김근주, 김기범, 김난희, 김덕, 김동훈, 김미정, 김봉래, 김상열, 김상욱, 김석주, 김선, 김선호, 김성열, 김성학, 김수정, 김신한, 김영진, 김옥경, 김유성, 김인성, 김인철, 김정은, 김중욱, 김주석, 김준수, 김준혁, 김지용, 김진, 김진희, 김철휘, 김태열, 김태환, 김하양, 김한나, 김현주, 김형규, 김휘영, 나정수, 나종삼, 남백희, 남상윤, 남태일, 노성은, 노혜미, 동방호현, 문혜진, 민은경, 민은주, 박기용, 박민균, 박병만, 박상백, 박성민, 박성준, 박소영, 박애영, 박연주, 박영혜, 박재익, 박정수, 박정숙, 박중순, 박진일, 박진호, 박성희, 방필연, 배덕만, 배명성, 배운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변성진, 변은혜, 서연자, 서주희, 손주환, 송경근, 송아진, 송은진, 송인수, 송지훈, 송현미, 송효진, 신선영, 신소용, 신주현, 신지호, 안경숙, 안병열, 안상욱, 안재영, 여신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왕정수, 유가을, 유경석, 유명중, 유병욱, 유솔, 유수경, 유슬기, 유영백, 유영성, 유욱, 유주환(정수원), 유태완, 유형주, 윤기석, 윤기원, 윤혁택, 이경하, 이길승, 이동주, 이두성, 이로운, 이명희, 이미순, 이미영, 이병선, 이병욱, 이병훈, 이상진, 이상호, 이셋별, 이수미, 이수연, 이순조, 이승민, 이양천, 이연우, 이완수, 이원근, 이은재, 이장은,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지선, 이지연, 이진숙, 이진현, 이한일, 이행규, 이향숙, 이현창, 이희석, 임중화, 임철호, 임혜진, 장건세, 장상순, 장은선, 장의신, 장재규,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미이, 전세훈, 전증환, 정국진, 정석구, 정선호, 정영희,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도, 정지영, 정지훈, 정진희, 정찬형, 정철규, 정택인, 정혜경, 정희진, 조경원, 조기행, 조상우, 조순례, 조영민, 조원규, 조은아, 차미나, 차정호,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최동국, 최미곤,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순남, 최영상, 최영희, 최용주, 최윤희,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준, 최진영, 최혜영, 최황덕, 하태권, 한나영, 한명호, 한부흥, 한상은, 한승환, 한은혜,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혜원, 함봉식, 허성호, 허진석, 허환구, 홍인경, 황가영, 황준영, 황혜정

## 교회 및 단체후원

㈜소영로지스틱스, 100주년기념교회, 개포동교회, 나들목교회, 무지개교회, 삼일교회, 새삼교회, 송인수 가정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한그루교회

## 장학후원

무명

## 목적후원

이유진(사무보조 후원), 복있는사람(장소대여)

## 운영성과

계정과목	금액
사업수익	31,657,370
후원금	12,480,000
일반후원금	11,030,000
특정후원금	1,450,000
사업수입	19,133,370
수강료수입	16,750,000
사업수입	2,383,370
기타수입	44,000
기타수입	44,000
사업비용	17,129,872
사업운영비	5,253,390
사업인건비	3,200,000
사업진행비	1,633,390
사업홍보비	420,000
관리운영비	11,876,482
인건비	3,703,500
사무관리비	8,172,982
당기 순자산의 증(감)	14,527,498

## 재무상태

계정과목	금액
<b>자산</b>	
유동자산	17,305,444
당좌자산	17,305,444
비유동자산	58,643,450
투자자산	3,030,000
유형자산	35,613,450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75,948,894
<b>부채</b>	
유동부채	0
부채총계	0
<b>순자산</b>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74,503,894
잉여차액	74,503,894
당기차액	14,527,498
순자산총계	75,948,894
부채와순자산총계	75,948,894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올 한해도 계획된 사업내용대로 열심히 사역하는 느헤미야가 되도록
2. 올해 목표한 후원자 배가(300명 확보)와 전임교수 2명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여
3.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서로 교감하며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 편집부 이야기

- 느헤미야는 술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나 술보다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개강예배 중 배덕만 교수 설교), 그렇습니다. 올해는 술보다는 성령에 취해봅시다.
- 느헤미야는 일종의 늑입니다. 늑에 빠지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런..(개강오티 중 고상환 사무처장). 느헤미야의 공동체성은 늑과 같은 질퍽함이 있습니다.
- 이번에 소식지를 재창간했습니다. 사무처장과 배한나 간사님, 그리고 기독교학연구과정의 산증인(입문부터 지금까지) 광명화 학우가 함께 합니다. 과정별 소식이나 광고, 그리고 간단한 글을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후원방법

####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광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5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http://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mailto:nics@nics.or.kr)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http://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XXX

국민 822401-04-042816